

성령이 임하다

성경 사도행전 2:1-13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마지막 날에 (은혜의 찬양 274장)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2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가 184장)

- 1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 2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웁니다
- 3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주소서
- 4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주소서



[후렴]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읽기 사도행전 2:1-13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 11 그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나 하며
-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문 배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1절).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타국의 언어였습니다.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여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가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인 성도들에게 임재하셨고,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 관찰

1 오순절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4절)

답 홀연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해설 120명의 성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습니다(1절).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2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3절). 이와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2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7-11절)

답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해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7절). 갈릴리 사람이 여러 지역 언어들로 말하는 것으로 보고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8절). 두 번째 반응은 조롱입니다(13절). 그때의 시간은 “제 삼 시”로, 현대 시간 계산법으로 오전 9시였기에 제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행 2:15).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반응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제자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홀연히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습니다. 나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7-1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 = 115

작곡 김수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가정에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이 부정할 수 없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정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게 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